

샌프란시스코 AT&T Park

- 관중 중심의 야구장

최 석 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ichoi@cerik.re.kr



AT&T Park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구장 중에서도 항상 상위 순위에 거론되는 아름다운 구장이며, 내셔널리그의 명문 야구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이다. 홈런 타자 배리본즈가 오른쪽 담장을 넘기면 바로 샌프란시스코 베이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담장 밖 바다에는 항상 보트가 서성이는 재미난 풍경을 주는 구장이기도 하다. 참고로 배리본즈는 박찬호 선수를 상대로 당시 최다 홈런 신기록인 71호와 72호를 기록하였으며, 베이브 루스의 통산 홈런 기록인 714호에 이어 715호를 김병현 선수를 통해 달성한 악연(?)을 가진 선수이다.

주요 자원 및 특징

이 구장은 2000년 3월 31일 개장되었다. 수용 인원은 4만 9,000명으로 샌프란시스코 만을 끼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오른쪽 펜스가 높고 짧게 설계되어 있어 좌타자인 배리본즈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상당히 훌륭한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소유 기업은 차이나 베이신 경기장 기업이며, 건설 비용으로 35억 7,0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설계는 HOK 스포츠베뉴 이벤트가 담당하였다. 좌측 펜스까지 111m, 중앙 펜스까지 122m, 우측 펜스까지 94m로 비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 설계

는 미국 야구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좌우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야구장 모습과는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2008년 미국의 저명한 스포츠 전문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구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 구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은 'Breathtaking View'라 할 수 있다. 누구나 한번 가고 싶은 샌프란시스코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건설 과정

AT&T Park 구장 건설의 최초 구상은 1976년 당시 구단주였던 Bob Lurie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홈구장이었던 Candlestick Ball Park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단주는 시내에 새 구장 건설을 원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시청은 도심지 구장 건설 대신에 기존 구장에 돔을 덮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샌프란시스코시 주민 투표에서 거부되었다. 구단주는 연고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나 산타클

라라로 옮기고자 하였다.

이 계획 역시 모두 무산되었다. 1992년 Peter Magowan은 플로리다로 팀 이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도심지에 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인수하였다. 1995년 자이언츠는 메이저리그 구장 가운데 최초로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구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철골, 철근콘크리트, 조적을 혼합한 형식으로 AT&T Park 구장은 1997년 12월 11일에 착공되었다. 당초에는 구장 이름을 Pacific Bell을 24년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5,000만 달러를 조달하였다. 나중에 SBC Park로 바뀌었으며, 2006년에 AT&T로 다시 구장 이름이 변경되었다.

설계의 특징

외형적으로 AT&T Park는 철골과 조적을 혼합한 웅대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다. 주출입구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월리 메이스의 동상이 있다. 또한, 구장의 양쪽에는 대형 시계탑을 배치



AT&T Park의 우측 펜스 전경(source : <http://www.ballparksofbaseball.com>).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85

AT&T Park와 잠실구장의 관중석 비교



AT&T Park(source : www.sponsorshipstrategies.com).



잠실야구장(source : 동아일보).

하여 고전적인 느낌도 함께 주고 있다.

이 구장은 경기 관람객 중심의 설계로 모든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AT&T Park만의 특징은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대부분은 생동감 있는 야구 경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 운동 영역과 관중 영역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고 있으며, 관중석 높

이 역시 선수의 눈높이에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홈플레이트 뒤쪽 영역을 관람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야구 경기장 대부분은 경기장 운영진을 위한 공간으로 홈플레이트 뒤쪽을 활용하고 있으며, 관람석 역시 운동 영역보다 높이 위치되어 있다.

앞서 사진에서 그 예를 찾아보자. 위쪽 사진은 AT&T Park의 1루석 덕아웃과 관중석의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다 현장감 있는 경기 관람을 위해 미국의 야구장은 대부분 덕아웃을 지면보다 낮게 배치하고 있다. 반면에 아래쪽 사진은 잠실야구장의 1루측 덕아웃과 관중석 모습이다. 덕아웃을 지면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중석은 경기 지역과 멀어지게 된다.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관람 만족도는 물론 구단의 경기 수입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축구장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덕분에 국제적인 축구 전용 경기장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경기장 설계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관중석과 경기장의 일체화였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경기가 박진감 넘치는 이유는 선수들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 근접한 관중석 덕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 야구장도 국제적 수준의 국내 축구장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는 관람객에게 주는 설계 개념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최근 개장한 포항야구장은 메이저리그식 구장으로 홍보될 만큼 관중 지향적 설계가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T&T Park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홈플레이트 위치에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 야구장 설계 기준서는 홈플레이트를 동쪽과 북서쪽 사이에 자리 잡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내/외야수가 오후의 태양을 등지고 경기할 수 있도록 한 배려이다. 하지만 포수나 타자 입장에서는 좋은 입지가 아닌 것이다. 반대로 미국 LA Dodgers 경기장은 남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타자를 배려한 조치이다. 공격적인 야구를 유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발상부터 다른 것으로 보인다.¹⁾

맺음말

스포츠의 글로벌화는 우리나라 관중의 눈높이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야구 역시 국내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미국 경기장의 모습이 거의 매일 방송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반대로 국내의 경우 국민적 관심에 비해 경기장의 수준은 열악하다 못해 한심한 수준이다.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돔구장 혹은 새로운 구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아 타이거스의 새로운 경기장은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된다.

향후 새로운 구장을 짓거나 혹은 기존 구장을 리모델링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설계 요건은 바로 관람 편의성의 비약적인 제고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내 야구장의 설계는 관중보다는 행정 중심 혹은 운영진 중심의 설계였다고 생각한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양키스 등 미국의 명문 구단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야구단이다. 수익의 근간에는 훌륭한 경기장에서 벌어들이는 관람 수익이 있다. 참고로 미국 메이저리그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8억 871만 5,710명의 유료 관중을 동원하였다고 한다.²⁾ 이제 스포츠 경기장은 단순히 특정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건설 시설물이 아닌 시민들과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와 스포츠의 콤플렉스인 것이다. 더불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무리를 해서라도 시즌권을 사고 싶은 국제적 수준의 야구장을 가진 명문 구단을 보고 싶다. CERIK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o0mo&logNo=130161764015>의 내용 인용.

2) 미국은 팬 비용지수(Fan Cost Index)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4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성인 2명과 아동 2명의 평균 입장료와 각종 식음료 등이 포함된 비용임. 팀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평균 FCI는 194.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